

이건희 별세 한달... 삼성계열사 불확실성 털고 주가 고공행진

JY 체제 기대감에 고배당 매력까지... 사법리스크는 여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7개 계열사 주가 평균 13.8% ↑
 삼성물산 16.3%, 삼성생명 16.4%
 삼성바이오로직스 25.6% 치솟아
 '10조 상속세'에 배당성향 상향 등
 증권가, 삼성주가 상승 이유 꼽아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가 이견희 회장 별세 후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배당 확대 기대감과 함께 경영권 안정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회장 별세 후 20일까지 거래일 20일간 7개 주요 계열사 주가가 평균 13.8% 올랐다.

삼성물산(16.3%)이 큰 폭으로 올랐고, 삼성전자(7.4%)와 삼성생명(16.4%) 등 주요 계열사도 큰 상승세를 경험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6%나 치솟으며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를 여실히 반영했다. 2차전지 계열사인 삼성SDI도 21.3% 상승률로 2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아울러 호텔신라(5.7%)와 삼성SDS(4%)도 함께 주가를 높이며 삼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시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계열사 주가 상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들고있는 스마트폰이 '익스펜더블'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4공장을 준공하며 바이오 분야에서도 '초격차'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유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배당 증가 가능성을 꼽는다. 10조원을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지분률이 17.33%인 삼성물산과 고 이견희 회장 지분이 20.76%인 삼성생명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물산이 43.44% 지분을 가진 회사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삼성 주가 상승이 비단 상속과 관련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전망과 함께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당장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견희 회장이 생전에 반대체 다음 미래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지목했던 일도 다시 언급됐다. 최근 4공장 준공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최대 바이오 생산 업체 자리를 확고히 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치료제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삼성SDI가 2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삼성SDI는 삼성전자가 19.58%로 최대주에 올라있으며, 국민연금공단(10.02%)과 블랙록 펀드(5.01%)가 대주주로 있어서 지배구조 개편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 2차전지 산업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

가를 크게 높였다는 얘기가.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가, '공정경제 3법'과 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3법이 통과되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다가, 보험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지분률 급감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삼성 계열사 주가 급등 이유는 상속세에 대한 최대주주 일가의 배당과 담보대출을 통한 납부 가능성"이라며 "공정경제 3법이 올해 내로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 기대가 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2개월 '반짝상승'

산업부, 10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백화점·대형마트 전년비 2.1% ↑
 온라인 17.1% ↑ 평균 8.4% 증가
 이달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에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빨간불' 우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11월엔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2.1%, 온라인 매출은 17.1% 증가해 전체 매출은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출도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되기 전인 1월 +4.1%를 기록한 2-8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9월 플러스(+1.0%)로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워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매출 상승은 10월말부터 진행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다양한 할인행사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과 시즈할인 행사기획 영향으로 이

전보다 더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군별로 가전문화(26.4%), 유명 브랜드(23.8%) 매출 증가가 눈에 띄는 가운데, 나머지 생활/가정(14.1%), 아동/스포츠(10.0%) 등 대부분의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전체 오프라인 매장방문 구매건수는 9.8% 감소했지만, 구매단가는 오히려 17.0% 증가했다. 백화점의 구매건수 감소(-17.3%)가 가장 컸으나, 구매단가 증가폭 역시 백화점이 26.0%로 최고였다.

업체별 매출비중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SSM 등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유통의 매출 비중은 45.5%로 커졌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는 백화점(+4.2%), 편의점(+2.9%), 대형마트(+2.3%) 매출은 상승했으나 SSM(준대규모 점포, -12.4%)만 크게 하락했다.


11월 중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다시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달 24일 이후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지난 8월 재확산 영향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유통업체 매출 감소는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3월 -17.6%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4월 -5.5%, 5월 -6.1%, 6월 -3.0%, 7월 -2.1%로 완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엔 -2.4%로 꺾짝 반등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가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968호(2020-08-24~2021-08-2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
 공정한거래 | 투자의미래